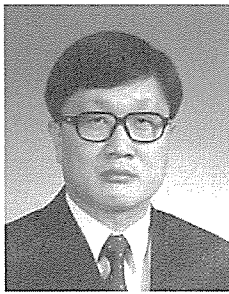


# 산림 전문 인력 양성의 요람, 산림인력개발원



공학박사 정 성 호  
(산림인력개발원 교수)

서울에서 동북쪽을 향하여 47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이르면 산림인력개발원이 나온다. 산림인력개발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산림관계 공무원 전문 교육훈련기관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문호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숲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한 단계 차원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인력개발원의 역사는 1978년 1월에 수원에 소재하고 있던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청사 내에 임

업연수원으로 개원하면서부터 시작된다. 1989년 12월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현재의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그러다가 1996년 12월에는 기존의 교육과와 함께 산불방지훈련과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1998년 12월에는 정부의 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임업연구원(현 국립산림과학원)과 통합하여 임업연수부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6년 1월 1일 산림인력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리봉 아래의 20만여 평의 대지 위에 5개의 강의실과, 분임실, 전산실, 도서실, 생활관, 실습실, 식당 등을 갖춰 교육생들이 학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33명의 직원들이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인력개발원에서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산림공직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지식·정보·자원관리 능력 함양, 지식정보화, 지구촌시대를 선

〈표 1〉 2005년 교육실적

교육 과정	계 획			실 적			비 율 (%)
	과정수	회 수	인 원	과정수	회 수	인 원	
계	46	98	5,341	54	133	6,105	114
전문 교육	36	61	2,235	36	61	1,952	87
위탁 교육	6	10	746	6	9	798	107
민간인교육	4	27	2,360	4	28	2,163	92
비정규과정	-	-	-	8	35	1,192	-

〈표 2〉 2006년 교육계획

교육과정	계 획			실 적		
	과정수	회 수	인 원	과정수	회 수	인 원
계	58	120	4,405	46	98	5,341
전문교육	45	85	2,895	36	61	2,235
일반인교육	6	16	600	4	27	2,360
비정규과정	7	19	910	6	10	746

도할 미래지향적 교육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표 1〉과 같이 54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6,105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발굴 및 산림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교육으로 원래는 46과정 5,341명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54과정 6,105명의 교육생 배출 실적을 올려 계획에 비하여 114%로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조직목표달성 및 업무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지향형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의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형 실천학습프로그램(액션러닝)을 개발하였다. 교육품질의 불루오션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2회에 걸친 산양삼재배반, 소나무재선충방제반 2회, 종묘반 등 6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취득 교육과정인 산림토목반을 운영함으로써 참여도 128%를 기록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한껏 높이기도 하였다.

2006년도에는 산림인력개발원 출범을 계기로 제도약한다는 각오아래 직무교육 전문화 및 교육기능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조직을 정하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54개 과정 133회 6,105명을 교육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산림인력개발원은 중점추진사항을 설정하여 2006년도의 교육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즉, 산림정책과 직무교육이 상호 연계된 교육훈련 강화하여 연중추진하며, 도시와 숲이 상생공존하는 교육과정 확대 실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산림정책을 반영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품질을 개선하는 등 교육품질서비스의 불루오션 전략 추진하고 있다. 산림정책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현

장중심의 토론과 성찰 학습을 위한 문제해결형 실천학습(A/L)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 실시 등 교육시스템과 교육컨텐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산림 인력개발원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지만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교육과정을 일반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으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과 실제 생활이나 작업 및 각종 작물 재배 등에 유익한 실용적인 내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경수재배반의 경우는 ·조경수 재배현황 및 전망을 비롯하여 수종별 재배방법 등의 조경수 재배 관리, 조경수목의 종류 및 수종별 특성, 조경수목의 관리, 비배 및 병충해 방제, 조경수 양묘 및 접목기술 등 조경수 재배에 꼭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녹지조경반의 경우는 녹지조경계획 및 설계요령을 비롯하여 조경수목 및 배식, 녹지공원 유지관리, 조경용 목재, 조경재료와 시공, 가로수 관리, 생태복원기법, 특수지역 녹화, 조경수목관리 등 녹지조경 실무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과목으로 짜여 있다. 유실수재배반의 경우도 밤나무 주요 품종, 호두나무, 다래, 머루, 은행나무, 매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복분자 딸기 등 산림소득원으로 가치가 높은 유실수의 특성 및 재배법, 시비 및 토양관리법, 병해충 방제법 등 알찬 과목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산양삼재배반도 웰빙의 열풍에 부응하여 고품질 산양삼의 재배 기술, 산양삼의 최적 생육환경, 청정삼 재배기술 및 수확관리, 산양삼 병충해 예방, 산양삼의 유통현황 등 산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목이

〈표 3〉 일반인 참여가능 교육과정

분 야	교 육 과 정 명	교 육 대 상
임업기술	수목보호기술반	공무원, 일반인
임업기술	수목식별반	공무원, 일반인
자원조성	숲가꾸기반	공무원, 일반인
산림보호	백두대간 관리반	공무원, 일반인
산림소득	목조주택반	공무원, 일반인
산림소득	야생화, 분재반	공무원, 일반인
산림소득	임산버섯재배반	공무원, 일반인
산림소득	유실수재배반	공무원, 일반인
산림소득	조경수재배반	공무원, 일반인
산림소득	종묘반	공무원, 일반인
산림소득	산양삼재배반	공무원, 일반인
도시/생태	녹지조경반	공무원, 일반인
휴양문화	자연휴양림관리반	공무원, 일반인
산림소득	임업후계자반	임업후계자
산불방지	전문진화대팀장반	전문진화대팀장
산불방지	청소년산림체험반	초중고학생
산불방지	시민산림체험반	민간단체
산불방지	조합원 산림체험반	조합직원
산불방지	전문진화대 장비반	진화대 팀장
숲 체 험	시민 숲 체험교실	일반인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도 해당분야 다년간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자와 와 전문 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인력개발원은 앞으로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정부혁신 역량배양 및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녹색 시대를 선도할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하며 문제해결형 사례중심의 현장교육을 활성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정부혁신 및 국정개혁 실천 의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적극 개발·운영하며 현장 문제 해결형 위주의 전문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액션러닝(A/L), 자기주도학습(SDL),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식 채택하고 전문화 체계화된 산불교육으로 예방 및 진화인력도 양성하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임업선진국 해외연수도 병행한다는 실천방침을 정하여 21세기 산림복

지국가를 이끌 혁신 전문인력 양성한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운영중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려면 인터넷(www.fhi.go.kr)이나 전화(031-570-7323)로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방침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직무교육 전문화 및 교육기능의 고품질화를 위한 조직정비 및 교수요원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방안을 도입하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및 산불관련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임업경영인, 일반시민, 관련 NGO 등 다양한 교육대상을 확대하며 의무적 교육·학습시간제 도입에 따른 산림공무원의 교육참여 확대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 문제해결중심의 교육과정 개편(Curriculum Reorganization Focused on the Problem Solving)
  - 현장중심의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주는 전문교육과정 개설로 산림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화 도모
  - 실용적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위주의 직무 교육과정 확대
    - 현재는 실무자 보수교육 및 주입식교육 위주로 실행
- 다양한 교육방식의 도입(Introduction of Diverse training method)
  - 수요자중심의 주문형 현장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행동학습 및 토론형 교육 방식 도입
  - 자기주도적 평생학습(SDL)을 교육수요와 연계
  - 교육훈련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등 연수생 종합 관리프로그램 운용으로 연수서비스 품질 제고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과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Construction of Comfortable Training Environment and Offer of High Quality Training Service)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환경 개선
    - 청사증축 및 생활관, 식당 등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
  - 체험학습 및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자재 현대화
    - 전산장비, 측량장비, FGIS 교육장비, 산림계측장비 등
  - 홈페이지 구축으로 고객유치를 위한 교육서비스 품질개선 추진등
- 신임 산림공무원 장기 실습과정 신설(독일의 교육제도 벤치마킹) (Foundation of Long-Term Field Training Course for the New Foresters)
    - 명실상부한 전문 산림공무원으로의 실무교육 강화
    - 교육기간을 직급에 따라 3개월 ~ 6개월 주기로 실시
      - 8-9급 : 1~3개월, 6-7급 : 3~6개월, 5급 이상 : 6개월 정도
  - 시대흐름에 부응한 시민 및 녹지 교육강화 (Enforcement of Training for the Civilian Participation and Urban Forest Mgt)
    - 시민참여 교육의 확대
      -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의 증가에 따른 교육대상 영역 확대
      - 시민 숲체험반 과정 확대실시(상반기 신규 2회 기 실시)
      - 자연휴양림관리반(1회30명), 등산문화반(1회30명)등 운영
    - 녹지교육의 확대
      - 쾌적한 도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녹지관리반(2회 80명), 녹지조경계획 및 조경수목 배식 등 녹지조경반(3회 120명)편성 운영
      - 공원녹지설계, 녹지공간조성 및 유지관리와 공원내 생태계 관리 등 공원녹지관리반(1회30명)등 운영
      - 도시하천의 자연형 하천복원과 옥상녹화, 베란다조성, 벽면녹화 등 생태적 도시구조물 녹화를 다룬 생태도시조성반(2회 80명) 운영
  - Well-Being과 연계된 질높은 교육훈련실시 (Practice of High Quality Training Connected with Well-Being Life)
    - 국악의 향기, 명상프로그램 도입(각과정)
    - 산림치유, 산악등산 등 실생활 관련 강의 실시
  - 산불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Specialization and Systemization of Forest Fire Prevention Training)
    - 고도의 산불교육훈련으로 최정예의 산불전문요원 양성
      - 양적인 산불교육에서 질적인 산불교육으로 개편
    - 국제수준의 최첨단 시설의 산불방지종합훈련센터 설치·운영
      - 전문화된 산불이론 습득과 산불방지용 종합훈련장 필요
    - 산불교육 훈련과정에 최신장비를 활용 교육할 수 있도록 진화 장비의 현대화 추진
    - 산불교육훈련과 관련된 국제교류 협력사업 적극 추진
  - 국제교류 및 협력 확대
    - 다양한 해외연수 및 외국공무원의 국내연수 확대
      -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임업선진국 정책연수 확대
        - 산림정책반 등 6개 과정 7회 8개국 연수
      - KOICA사업과 연계한 개발도상국 임업공무원 초청 연수
    - 국제교육 훈련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확대
      - 미국, 캐나다, 호주등과의 산불 등 교육 훈련프로그램 교류
      - 중국 임업간부학원과 교류 확대(매년 쌍방 방문 2명) 